

안암병원 202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노사, “협력업체 후원용품 전달식” 진행



지난 23일 오후 3시 안암병원 헤드오피스에서 2024년 안암병원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열렸다.

사측은 대표위원인 한승범 병원장, 강석호 기획실장, 정태경 경영관리실장 및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자리했으며 노측은 대표위원으로 송은옥 지부장 및 전임간부가 참여했다. 한편, 노동조합에서 최삼호 총무부장과 김진아 선전부장이 새로운 위원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범 병원장, 현재 상황 좋지 않지만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사측 대표위원인 한승범 병원장은 “의료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을 맞았고 과거에도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심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전공의가 없어 환자 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과 노사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걱정 섞인 말을 건넸으며 “이 기회를 통해 노사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구심점을 확보해야 한다.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우리병원이 모든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싶은 병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노사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송은옥 지부장, 직원들도 함께 고통분담 하고 있어.
이어 노측 대표위원인 송은옥 지부장은 “최일선에서 교수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직원 모두가 알고 있다.

대표위원님 말씀처럼 노사는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아 병원장님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 저희도 현장에서 고충을 들으면서 고민이 많다. 노동조합도 고대안암병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힘들지 않도록 함께 하면 좋겠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안암병원의 모범으로 더 좋은 병원 만들어보자!

외주업체 직원들을 위한 “후원용품 전달식” 진행

안암병원은 산안위 소위원회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여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후원용품을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산안위가 끝난 뒤 협력업체에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안암병원 산하 협력 업체 직원 약 270명에게 목선편지를 지급했다. 병원장의 인사말처럼 노사가 소통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모범을 창출해 내고 더 좋은 병원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 현장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탄》 2024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 9,620원 -> 9,860원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인상 : 3+3에서 6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6개월 연장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200-4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결과 >

안전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환자 이송용 슬라이드 질 개선】 2023년 3/4분기 산안위에서 환자 이송용 슬라이드 질 개선하기로 의결한 후 샘플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천을 교체해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코드작업을 실시했으며 천만 교체가능하도록 했다. 추후 신청 가능하다.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 송출】 2023년 3/4분기 산안위에서 폭언폭행금지 안내멘트를 전 부서, 모든 회선으로 송출하기로 의결했는데 언제적용되는지?	전공의 사태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정도 정상화가 된 이후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 양해바란다.
	【환경관리실 1인 근무 금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실 1인 근무를 금지하고 2인 이상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LTE 무선기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유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단점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면 그 때 설치해도 늦지 않지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응급실 간편화 질 개선】 2023년 3/4분기 산안위에서 결정된 안건이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한가?	최근 간편화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다. 그 제품을 응급실에 샘플 테스트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어 응급실 샘플테스트만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노동조합 참여 및 용품 지원】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게 되면 후원 용품 지원 처럼 노조참여를 통해 안전의 더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노조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입장을 전달 해달라.	이번 후원 용품 전달을 통해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의 업무 방안 마련】 외부고객과 외부고객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당사자간의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원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자. 현재 안암병원은 그러한 창구가 없어 불편이 접수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담당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운영하라는 말만 되어 있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 홍보를 통해 내원객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상추정제 기준 마련】 공상추정제란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 공상추정제를 통해 부서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더욱 손 쉽게 직무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 없음
근로자의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손목보호대 지급부서 확대】 2023년 3/4분기 산안위에서 중환자실 환자 체위변경 담당 직원에게 손목보호대를 지급했다. 중환자실 외에 손목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에 확대 지급하도록 하자.	3개 병원 노사 실무담당자가 함께 정하자.
	【시설팀 근무복(하의) 질 개선】 기능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하의로 개선하자.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구로안산에서 테스트 중인 제품을 원한다면 맞추면 되고 안암에서 따로 요청한 제품을 원한다면 따로 지급할 것이다. 다만 3개병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시설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